

장흥의 인간문화재 8명중 유일한 여성인 趙命姬(57). 한편 타령을 늘어놓으면 심플한 사랑처럼 장구 가락에 어깨가 넘어간다. 열제 제자가 6명이나 살아 생전 尺을 여울 제자가 없으니 안타깝다.